

수원을 즐기go! 놀리go!

수원문화홍보단 3기 모집안내



수원문화홍보단 모집개요

- **모집대상**
 - 국내 대학교 재학 외국인 대학생
 - 한류나 여행에 관심이 있으며, 다양한 SNS 매체 활용 가능자
 - ※ 한국어 가능자 우대
 - ※ 단체참가 가능
- **모집일정**
 - 모집기간 : 2016. 3. 14(월) ~ 3. 31(목)
 - 합격자 발표 : 2016. 4. 8(금)
 - 발대식 : 2016. 4. 16(토) 예정
- **지원방법**
 - 수원문화재단 홈페이지 신청서 다운로드 후 작성하여 이메일(suwoncf@gmail.com) 제출
 - ※ 한국어 홈페이지 : www.swcf.or.kr
 - ※ 영어 홈페이지 : english.swcf.or.kr
 - ※ 일본어 홈페이지 : japan.swcf.or.kr
 - ※ 중국어 홈페이지 : china.swcf.or.kr
- **활동기간**
 - 2016년 4월 ~ 12월 (8개월간)
- **활동내용**
 - 자국어로 수원 관련 정보를 개인 SNS(Blog 포함)에 등록
 - 연 4회 수원투어 참가, 후기 작성
 - 언어권별(혹은 대륙별) 팀 구성하여 수원화성 관광모니터링 실시
- **활동혜택**
 - 수원화성 프리패스(Free Pass) 부여 - 동반 1인 무료입장 가능
 - 구석구석 수원 즐기기! - 연 4회 수원투어 무료 참가 기회
 - 재단 주최 행사(공연, 전시 등) 및 축제 무료참여 혜택
 - 활동증서 수여
 - 우수 홍보단원 시상, 상품 증정

Recruitment notice for the 3rd Suwon Cultural Ambassadors

- **Recruitment conditions**
 - International students currently attending universities within Korea
 - Students interested in “Hallyu (Korean Wave)” or travelling, capable of using various SNS platforms
 - ※ Students with good command of Korean will be given preferential consideration
- **Recruitment schedule**
 - Application period : March 14 ~ March 31, 2016
 - Results announcement : April 8, 2016
 - Starting ceremony : Scheduled for April 16, 2016
- **How to apply**
 - Fill in an application form downloaded from the Suwon Cultural Foundation website and submit via email (suwoncf@gmail.com)
 - ※ **Korean website** : www.swcf.or.kr
 - ※ **English website** : english.swcf.or.kr
 - ※ **Japanese website** : japan.swcf.or.kr
 - ※ **Chinese website** : china.swcf.or.kr
- **How long will you served**
 - April 2016 ~ December 2016 (8 months)
- **Activity details**
 - Register information related to Suwon in the student's native language at personal SNS platforms (including blogs)
 - Participate in Suwon tours 4 times a year, and write tour reviews
 - Form teams according to language groups (or continental groups) and monitor tourism for Suwon Hwaseong Fortress
- **Activity benefits**
 - Opportunity to participate in Suwon tours 4 times a year for free
 - Receive a Suwon Hwaseong Fortress free pass to carry out activities free of charge
 - ※ Suwon Hwaseong Fortress free pass allows 1 additional admission free of charge
 - Receive preferential invitations and requests for participation in events hosted by the Suwon Cultural Foundation
 - Receive activity certificates and outstanding Ambassador awards (including prizes)

투어 안내

● 팸투어개요

회차	시기(예정)	투어명	내용
1회	2016년 4월	오감만족 수원화성	발대식 및 개막공연 연계행사
2회	2016년 5월	전통을 만나다	수원연극축제 연계행사
3회	2016년 8월	은은한 달빛아래 수원화성 즐기기	달빛동행 연계행사
4회	2016년 10월	220년 전으로 떠나는 수원화성 여행	수원화성문화제 연계행사

※ 위 일정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상세안내

- 1회 : 오감만족 수원화성
 - ▶ 상설한마당 개막공연 관람
 - ▶ 수원화성, 화성행궁 관람
 - ▶ 국궁체험, 화성열차 등 수원화성 상설체험
- 2회 : 전통을 만나다
 - ▶ 수원화성박물관, 수원 전통시장 관람
 - ▶ 2016 수원연극축제 관람
- 3회 : 은은한 달빛 아래 수원화성 즐기기
 - ▶ 수원전통문화관 프로그램 참여
 - ▶ 수원화성 야간 투어 프로그램 달빛동행 참여 또는 2016 수원국제음악제 관람
- 4회 : 220년 전으로 떠나는 수원화성 여행
 - ▶ 제53회 수원화성문화제 관람
 - ▶ 한국 전통춤 배우기
 - ▶ 행궁동 벽화마을 관람

Tour Information

● Summary

No.	Month	Name of Tour
1	April	Suwon Hwaseong that satisfies all five senses
2	May	Meet the Tradition of Suwon
3	July	Enjoy Suwon Hwaseong under the moonlight
4	October	Travel to the Suwon Hwaseong of 220 years ago

※ The schedule is subject to change

● Detail information

- 1st Event : Suwon Hwaseong Fortress that satisfies all five senses
 - ▶ Attending the Hwaseong Haenggung Opening Performance
 - ▶ Visit to the Suwon Hwaseong Fortress and Hwaseong Haenggung
 - ▶ Enjoy the experience of Suwon Hwaseong Fortress
- 2nd Event : Meet the Tradition of Suwon
 - ▶ Visit to the Suwon Hwaseong Museum
 - ▶ Visit to the Traditional Market
 - ▶ Attending the Suwon Theater Festival 2015
- 3rd Event : Enjoy Suwon Hwaseong under the moonlight
 - ▶ Enjoy the Korea Tradition etiquette and Dietary life
 - ▶ Night tour in Suwon Hwaseong Fortress
- 4th Event : Travel to the Suwon Hwaseong of 220 years ago
 - ▶ Attending the Suwon Hwaseong CULTural Festival
 - ▶ Learn the Korea Traditional Dance
 - ▶ Visit to Mural Village



수원을 전 세계인과 공유하다!

글·사진 한아름 기획홍보팀

지구 반대편의 친구와도 실시간으로 소통할 수 있는 세상! 요즘은 스마트한 시대이다. 이 스마트함을 앞세워 전 세계에 수원을 알리기 위해 이들이 모였다. '외국인 대학생 수원문화홍보단'은 지난 8개월 동안 세계문화유산 수원화성의 우수성과 수원화성문화제, 수원화성국제연극제 등 수원의 대표 축제에 참여하여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를 통해 생생한 현장 소식을 실시간으로 전달했다.

외국인 대학생 수원문화홍보대사

수원문화재단은 지난 4월 초, 세계문화유산 수원화성에 관심이 있고 국내 대학교에 재학 중인 외국인 대학생을 대상으로 홍보단원을 모집했다. 각 지역 대학교에 홍보물을 보낸 것은 물론, 가까운 대학교는 직접 찾아가 담당자를 만나고, 교내 게시판에 홍보물을 직접 붙여가며 적극적인 홍보를 진행했다. 당연히 재단의 SNS와 외국어

홈페이지 등 온라인 홍보도 놓치지 않았다.

모집 결과, 피부색도 언어도 문화도 각기 다른 일본·중국·독일·우크라이나·아제르바이잔·파키스탄 등 6개국 15명의 학생들이 수원에 모였다.

이들에게 놀랐던 점은, 지하철과 버스 등 대중교통을 여러 번 환승하며 수원까지 오는데 2시간 이상 소요되는 거리의 학생들이 대다수였기 때문이다. 낯선 땅에서 쉽지 않은 도전 아니었을까.

문화, 음악 그리고 전통을 만나다

홍보단을 발족한 이후 첫 번째 투어는 지난 6월 2014 수원화성국제음악제 개막일이였다. 정조대왕의 개혁정신이 담긴 수원화성 팔달문 주변 전통시장을 둘러보고, 2014 수원화성국제음악제 개막콘서트를 관람하는 등 전통과 문화가 조화를 이룬 수원을 직접 체험했다.

이들은 전통시장에서 온누리상품권을 가지고 물건을 구입함으로써 한국의 시장문화를 보다 친숙하게 체험했고, 서예가 윤경숙 선생의 지도 아래 영동 아트포라에서 부채에 붓과 먹을 이용하여 자신만의 작품을 만들기도 했다.

오감만족 수원화성

두 번째 투어는 수원화성을 더욱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다. 정조대왕의 친위부대인 장용영 군사가 실제로 훈련했던 수원화성 연무대(동장대)에서 국궁체험을 시작으로 문화관광해설사와 함께 수원화성에 대해 재미있는 이야기를 들으며 성곽길을 걸었다.

그리고 수원시무형문화재전수회관에서 아리랑에 맞춰 우리나라의 전통무용 소고춤을 배운 후 2014 수원화성 국제연극제 폐막작 '색채의 비상'을 단체 관람했다.

은은한 달빛 아래 수원화성 즐기기

홍보단은 수원화성의 대표 밤 문화 프로그램인 '수원화성 달빛동행'에도 참여했다. 청사초롱으로 불 밝힌 성곽을 따라 문화관광해설사와 함께 동행하며 수원화성에 얹힌 다양한 이야기를 전해 들었다. 이어 화성행궁 유여택에서 다과와 함께 전통공연을 감상하며, 잠시 일상을 떠나 고즈넉한 도심 속 고궁에서 힐링하는 시간을 가졌다.

한국에 있으면서 단 한 번도 느낄 수 없었던 고궁의 매력에 푹 빠진 홍보단원들은 모두 투어를 마친 후 화성행궁을 나가면서 엄지손가락을 치켜세웠다. 요즘 말로 '엄지 척'.



전통시장 투어(왼쪽)와 영동 아트포라에서의 서예체험.

220년 전으로 떠나는 수원화성 여행

네 번째이자 올해 마지막 투어는 제51회 수원화성문화제와 함께 했다. 화성행궁에서 수원화성문화제 부대프로그램인 규방공예 전시를 관람하고 수원화성 축성을 직접 체험했다. 특히 조선시대 화폐인 엽전을 이용하여 궁중 복식을 직접 입어보며 조선시대 과거로의 여행에 동참했다.

또한 화성행궁 옆 아름다운행궁길에서 세상에 하나 뿐인 나만의 칠보공예 장신구 만들기 체험과 우리나라 전통 의상인 한복을 입고 다식과 다도를 배웠다. 한복을 입은 모습이 어색해 다들 쑥스러워 했지만, 그것도 잠시. 다들 220년 전 사람처럼 절을 하며 인사를 나누고, 대감처럼 “허허허” 웃어 보이기도 했다.

이후 수원화성 연무대를 무대로 펼쳐지는 수원화성문화제 무예공연 ‘달의 무사’를 관람하며 과거로의 여행을 마무리했다.

수원문화재단이 올해 처음 시도한 ‘외국인 대학생 수원 문화홍보단’은 세계문화유산 도시 수원을 전 세계에 알린다는 취지에서 마련했다. 조선시대 문예군주 정조대왕의 혁신적인 리더십과 실학사상이 함께 접목된 수원화성은 세계 어디에도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문화유산이다.

한국에서 수학하는 젊은 외국인 대학생들이 좀 더 깊이 있게 우리 문화를 체험하고 이를 모국에 알리는 역할을 담당했다. 국적이 다른 이들이 회수를 거듭할수록 동질감을 느끼고 하나 되는 모습을 보며, 세계인이 하나라는 생각도 떠올랐다.

앞으로 수원문화재단은 2015년도에도 외국인 대학생 홍보단을 운영할 계획이다. 올해의 경험을 바탕으로 보다 의미 있는 아이템을 발굴해 세계인과 꾸준히 소통할 것을 약속한다.



다양한 전통문화 체험을 하면서 즐거워하는 수원문화홍보단원들

수원문화홍보단 활동소감문



우신혜
연세대학교 경영학과, 25 / 중국

수원은 풍부한 문화유산이 존재하는 역사적인 도시입니다

수원문화홍보단으로 활동하면서 재단이 제공해준 활동을 통해 배우고 수원을 더욱 많이 알게 되었어요.

수원화성은 말할 필요도 없이 중요한 명소이지만, 수원엔 그 이외에 재미있고 흥미로운 장소가 많습니다.

저는 수원화성국제연극제 때, 프랑스 예술가들이 화성행궁 야외광장에서 한 공연을 가장 재미있게 봤어요. 이런 멋진 기회를 제공해주 수원문화재단에게 감사의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파커 칸
한양대학교 에리카캠퍼스, 31 / 파키스탄

지난 6개월간 수원문화재단과 함께 한 홍보단 일은 매우 즐거웠습니다

수원문화홍보단 프로그램은 문화유산이 풍부한 수원에서 역사적·전통적인 장소와 한국 문화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저는 팔달문, 화성성곽, 수원화성과 화성행궁을 방문해서 역사적 미를 느꼈습니다. 게다가 세계적으로 유명한 음악가들의 연주를 관람할 수 있는 기회도 있었습니다. 수원화성국제음악제는 매우 기억에 남습니다. 연무대에서 국궁, 전통소고춤, 공예품 만들기와 한국전통놀이는 수원문화홍보단 프로그램 중에 제가 가장 좋아한 것입니다.

수원문화재단 담당자가 항상 도와주고 잘 보살펴주어서 홍보단 활동이 더 재밌었습니다. 또한 전통적 손길과 맛이 담긴 음식도 많이 먹었습니다.

저는 이 홍보단 활동을 수원이나 인근에 사는 외국인에게 추천하고 싶습니다. 수원의 문화와 전통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모두가 좋아할 것임을 확신합니다. 이런 기회를 준 수원문화재단에게 감사의 말을 꼭 하고 싶어요!

1년간의 수원문화홍보단 활동을 통해서 수원 화성의 역사를 배우고, 문화체험을 했습니다

활동을 하고 나니 한국을 더욱 좋아하게 되었습니다. 외국인에게 있어서 수원은 관광지 이미지만 있지만 길을 조금 더 가면 옛날 그대로의 시장도 남겨져 있어 현재 수원 시민의 생활 일부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아리랑'에 맞춰 소고춤을 주고, 전통한복을 입고 사진촬영도 했습니다. 공예품을 만드는 문화체험도 경험했고요. 홍보단이 아니었으면 체험할 수 없는 귀중한 추억이었습니다. 또, 국내에서도 유명한 수원 화성문화제에 수원 시민과 같이 참가할 수 있었던 것은 잊을 수 없는 즐거운 추억입니다.



도비사와 미요코
경희대학교 한국어학과, 36 / 일본

Sharing Suwon with the World!

Written and photo taken by Hanarum Promotion Planning Team

We can now communicate in real time with our friends on the other side of the world. We are now living in the smart age. Suwon Cultural Ambassador was formed to promote Suwon to the world using social networking services. For the last eight months, its members have engaged in Suwon's representative cultural festivals, including Suwon Hwaseong Cultural Festival and Suwon Hwaseong Fortress Theatre Festival, to promote the excellent World Cultural Heritage Suwon Hwaseong Fortress, and Suwon's cultural events to the world. They communicated with the world in real time, via SNS.

15 Suwon Cultural Ambassadors

In early April 2014, Suwon Cultural Foundation (SCF) recruited foreign students as Suwon Cultural Ambassador who had great interest in the World Cultural Heritage Suwon Hwaseong Fortress and who were attending universities in South Korea. SCF staffers sent publicity materials to various universities across the region, and visited universities in Suwon, where they met related officials. They also posted promotional materials on their campuses' bulletin boards in a bid to recruit the ambassadors. Online media, including SCF's SNS and foreign-language



Suwon Cultural Ambassadors who experienced diverse cultures for eight months

website, were also used to recruit the ambassadors. Finally, 16 foreign students were recruited. They came from six nations: Japan, China, Germany, Ukraine, Azerbaijan, and Pakistan. They were all different in skin color, language, and culture.

Surprisingly, most of the students lived two or more hours' drive by subway and bus away from Suwon. This attested to their enthusiasm for the mission. It must have been a challenge to them in this foreign nation.

Encountering Culture, Music, and Tradition

The Suwon Cultural Ambassadors launched their first mission tour by attending the opening ceremony of Suwon Hwaseong Fortress International Music Festival in June 2014. They also toured the traditional market around the fortress's Paldalmun Gate, which embraces the reform mindset of King Jeongjo, and they experienced Suwon, where tradition and culture harmoniously blend.

At the traditional market, the ambassadors purchased products with Onuri vouchers, and experienced the people-friendly market culture of South Korea. At the cultural and art center of Yeongdong Art Fora, they also tried to craft artworks using fans, brushes, and

calligraphy ink.

The Attractions of Suwon Hwaseong Fortress

The ambassadors also toured Suwon Hwaseong Fortress to know more about it. At Yeonmudae (Dongjangdae) in the fortress, where the Jangyongyeong Royal Guards of King Jeongjo used to practice military training, they tried out traditional Korean archery and were briefed on the intriguing stories of the fortress.

At Suwon City's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Promotion Center, they learned the traditional Korean dance Sogo to the Arirang song accompaniment, and attended the closing work of the 2014 Suwon Hwaseong Fortress Theatre Festival, dubbed "Flight of Colors."

Enjoying Suwon Hwaseong Fortress under the Snug Moonlit Night

The ambassadors attended the representative night cultural program "Walking Suwon Hwaseong under the Moonlight." They walked around the castle, which was lit by Cheongsachorong traditional Korean lanterns with red and blue silk shades, and were briefed by the guide on the diverse stories of the fortress. At



Suwon Cultural Ambassadors who experienced diverse cultures for eight months

the Yuyeotaek old-time governor's office building of Hwaseong Haenggung Palace, they were treated to tea and cakes, viewed traditional performances, and had a quiet healing time.

After having a rare and amazing experience of Korea's ancient palace, they flashed the "thumbs up" sign as they left the palace.

A Journey to Suwon Hwaseong Fortress of 220 Years Ago

The fourth and last tour of this year for the ambassadors was the 51st Suwon Hwaseong Cultural Festival. At Hwaseong Haenggung Palace, they attended the women's traditional craftwork exhibition, a part of Suwon Hwaseong Cultural Festival, and virtually experienced the construction of the fortress. They experienced touching Joseon's coins and tried to wear royal costumes to journey back to the Joseon period.

On the Beautiful Haenggung Road next to the palace, they tried to craft ornaments adorned with seven treasures, wore traditional Korean costumes, and learned the tea drinking ceremony and culture. They first felt awkward donning the traditional Korean costumes, but they soon became used to it. They

greeted one another and laughed as the Joseon officials did 220 years ago.

At the Yeonmudae playground of the fortress, they saw a martial arts performance dubbed "Warriors of the Moon," wrapping up their journey to the past.

The Suwon Cultural Ambassadors program launched this year by SCF sought to promote Suwon, the "Home of World Heritage," to the world. Suwon Hwaseong Fortress, which was built inspired by King Jeongjo of Joseon's reform mindset and spirit, practical thoughts, and love for cultures and arts, is a rare world cultural heritage.

A number of foreign students in South Korea had a deeper experience of the Korean culture and were thus empowered to promote the Korean culture to their respective motherlands. Foreign students of different nationalities joined this program and mingled with one another, offering the possibility of creating a harmonious world.

SCF again plans to organize Suwon Cultural Ambassadors in 2015. With this experience, we vow to further develop the program to continue to communicate with the world. 🏠

Suwon Cultural Ambassador

11



Suwon is a historical city with rich cultural background.

As a Suwon cultural ambassador, I get to know more about Suwon and learn about attractions it has to offer. Without doubt Hwaseong is the main attraction but there are much more interesting things to do in Suwon. I really enjoyed the performance of French artist in Suwon Hwaseong Fortress Theatre Festival. I would like to thank Suwon cultural Foundation that they have given me this wonderful opportunity.

Xinhai YU (Yonsei Univ, 25 / China)



It was a great pleasure for me to work with the Suwon cultural foundation for past six months.

The estimated program of “Suwon cultural ambassador” was worthy enough to understand the Korean culture, traditions and historical places especially those located in the culture in rich city of Suwon. I was able to visit and enjoy the beauty and originality of the historical places of Suwon, including Hwaseong fortress, Paldalmun, Hwaseong wall, different main gates and Korean folk village. Besides this, I had an opportunity to enjoy some great music from world class musicians; in this respect the annual music festival was memorable. The experience of archery at Yeonmudae, traditional arirang dance, making hand crafts and playing traditional games of Korea were few amazing things that I had practiced during this prestigious program. I found the staff of Suwon cultural foundation always loving and caring towards all the ambassadors which increased my interest in this program. We shared some great food at many occasions during this program which was tasty and with a traditional touch. I must recommend this program for other foreigners living in Suwon and nearby to explore the great, traditional and cultural city of Suwon. I know they will love it. I must say thanks to the SCF for this once in a life opportunity.

Fakhar Khan (Hanyang Univ, 31 / Pakistan)



By participating in the one-year Suwon Cultural Ambassador program, I learned a lot about the history of Suwon Hwaseong Fortress and experienced the Korean culture.

After finishing the program, I came to like Korea more. To foreigners, Suwon has a tourist site image, but the traditional markets are still operating as they were in the past, offering a view of the early Suwon citizens’ lifestyles. We danced a traditional Korean dance to the Arirang song accompaniment, and took pictures of ourselves wearing traditional Korean costumes. We tried to craft traditional artifacts. It was a valuable cultural experience with many memorable moments only for the cultural ambassadors of Suwon. My participation in Suwon Hwaseong Cultural Festival together with the Suwon citizens is one of my most enjoyable memories from South Korea.

Tobisawa Miyoko (KyungHee Univ, 36 / Japan)

외국인 대학생 수원문화홍보단

“SNS 친구들도 수원에 와 전통문화 체험해 보고 싶대요~”

수원이 세계무대에 등장하고 있다. 지난 달 22일 NBC가 미국판 '꽃보다 할배'의 촬영지로 수원화성을 선택해, 미국의 노년의 스타들이 무예 24기, 마상무예, 민속 줄타기 등을 즐겼다. 수원의 모습을 세계 곳곳에 알리고 있는 이들이 또 있다. 수원문화재단은 지난해부터 국내 대학 재학 중인 외국인 대학생들이 수원화성 답사, 수원화성문화제 참여 등은 물론 전통문화와 예절 등의 체험을 개인 블로그, 페이스북 등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를 통해 자신들의 나라에 알리는 '외국인 대학생 수원문화홍보단(이하 홍보단)'을 운영해 왔다. 현재 2기 홍보단 역시 'SNS를 통해 수원을 알린다(Post Suwon On SNS)'라는 캐치프레이즈 아래 수원과 한국의 전통문화 체험 결과물을 모국에 알리는 홍보대사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그들이 들려주는 한국 문화에 관한 이야기, 모방 송국의 '비정상회담' 만큼이나 뜨겁다.

한국전통과 문화에 대한 관심으로 수원문화홍보단에 참여

홍보단 2기는 한국에 거주하는 일본, 중국, 베트남, 폴란드, 터키 등 11개국 20명으로 구성돼 있다. 열심히 체험한 한국전통과 문화, 관광 등을 SNS를 통해 자국에 소개하고 있다. 이들이 홍보단에 참가하게 된 이유는 뭘까? 홍보단원들은 더 많은 친구들을 사귀고 싶고, 한국문화에 대한 관심이 많았기 때문이란다.

누구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베스테(터키·한양대)씨는 한국 문화를 배우고 체험하며, 새로운 친구들도 만나고 싶어 홍



보단이 됐다. 서울에 살고 있는데 수원이 너무 좋고 예뻐 수원에 푹 빠졌다고 살짝 귀띔한다. 일본과 중국과는 또 다른 면이 있는 한국의 전통과 문화에 대한 알아가면서, 동양 문화에 대한 이해에도 도움을 받고 싶었다는 아크람(파키스탄·성균관대)씨, “우리나라인 파키스탄도 같은 동양문화권인데 서로 연관돼 있거나 비교해 볼 수 있는 부분에 관심이 많다”고 호기심을 나타냈다.

한국의 멋과 맛을 알게 해준 체험활동, SNS에서도 인기 짱!

2기 홍보단원들은 벌써 여러 활동들을 해냈다. 자국에서는 경험할 수 없는 전통문화와 새로움의 연속이었다는 홍보단원들이다. '화성행궁 상설한마당 개막공연'을 관람한 후 수원화성과 화성행궁을 돌아봤다. 특히 화성열차에 올라 주요 관광 코스를 답사하고 연무대에서 국궁체험을 해 보기도 했다. 처음 하는 국궁체험이 인상적이었다는 홍보



단원들이 많았다. 수원연극축제 관람, 전통 부채 만들기, 아리랑에 맞춘 소고춤 체험 등도 특별한 기억을 선사하기는 마찬가지. 한국 춤에 매료되고, 자신들의 부채 작품에 수원에 대한 무한사랑을 표시하기도 했다. 수원시 전통식생활체험관과 예절교육관에서 전통음식을 직접 만들고, 한복을 다소곳이 입고 전통 인사예절과 다례를 배우며 전통예절을 체험한 것도 오래 지워지지 않을 추억이 됐다.

그런 마음이 담겨서인지 자신들이 보낸 SNS는 인기 절정이라. 류엘(중국·건국대)씨는 많은 친구들이 한국 전통문화 체험에 관심을 가지고, 한국에 대해서 많이 알게 되는 계기가 됐다고. 멜리사(말레이시아·한예중)씨도 “우리나라에서 SNS를 보는 사람이 많아 이를 통해서 수원화성 및 한국의 전통 및 역사, 체험 활동을 알려주는 것은 좋은 방법이다. 그 체험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 줄 수 있어서 기쁘다”고 전했다. “한국 사람들은 라면 같은 인스턴트 음식을 자주 먹는데, 한국 전통음식을 직접 체험하니 색감은 물론 몸에도 좋은 건강식품이란 생각을 했다”는 완기(중국·중앙대)씨는 “SNS에 올려 중국에 있는 친구들에게 알려 주고 싶다”고 알리미를 자처했다. 오자와 시즈카(일본·건국대)씨는 “주변에서 한국 전통의상

이 예쁘다는 친구들이 많다. 또 한국에 서울, 부산만이 아니라 수원이라는 좋은 곳도 있다고 알릴 수 있는 것 같다”고 흐뭇해했다.

한국의 젊은 세대가 전통문화에 좀 더 많은 관심을 갖기 바라

이런 소중한 체험들은 한국 문화의 매력에 푹 빠지게 하기에 충분했다. 완기 씨는 중국은 높고 큰 궁전을 지었기 때문에 거리감이 좀 있지만 화성을 보면 마음이 평안해 지는 것을 느꼈다. 와카스(파키스탄·한양대)씨는 “한국은 문화유산이 아주 풍부하다. 수원도 문화유산이 많은데, 기술적으로 발전을 했음에도 전통적인 유적들을 잘 보존하고 있는 것이 인상적”이라고 전했다. 그러나 비판의식을 가지고 한국문화를 바라보기도 했다. 아크람 씨는 한국의 젊은 세대들은 전통이나 문화에 대해 그다지 많은 관심을 갖고 있지 않는 것 같다는 것. “한국의 훌륭한 문화를 좀 더 잘 보존하고, 널리 알리기 위해서는 젊은 세대들이 좀 더 문화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수원에서 이런 기회를 통해 문화를 알리는 것은 좋은 것 같다.” 파키스탄도 여러 가지 즐길 문화들이 많은데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외국인에게 주지 못하는 것을 아쉬워하기도 했다.

권성미 리포터 kwons0212@naver.com

